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회		2017년도 제4차 회의록	
일 시	2017. 07. 26 14:00 ~ 15:00	장 소	CHA BIO COMPLEX B113
참석의원	정광희 의원, 김재환 의원, 김진경 의원, 박재범 의원, 오일숙 의원, 최근영 의원, 신의섭 의원		
불참의원	황태선 의원, 임지영 의원, 배진건 의원, 장용석 의원		
간 사	강창호 기획실장, 경희수 기획실 주임		
<p>I. 안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 2017-2차 교육과정위원회 안건 자문 <p>II.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광희 의장(이하 의장)이 의원정수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및 제대학원 학칙 개정(안), 2017-2차 교육과정위원회 자문 사항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이하 기획실장)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함 ○ 기획실장은 융합경영대학원이 경영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학칙 및 제대학원 학칙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함 ○ 개정내용은 구체적으로 대학교 학칙의 제2조(교육조직) 제1항 제8호, 제대학원 학칙의 제2조(학과와 과정) 제1항 제6호, 제12조(등록) 제2항 제3호, 제4호, 제17조(학위과정 재적연한) 1항의 표, 제19조(수업일수) 제3항, 제23조(신청가능 학점) 제3항, 제41조(응시자격) 제1항의 표, 제57조(학위과정 수수료) 제2호의 표, 제62조(논문대체졸업) 제1항 제3호, [별표1] 각 대학원 입학정원의 표, [별표2] 학위의 종류 제6호에 해당됨을 자세히 설명함 ○ 기획실장이 2017-2차 교육과정위원회 자문과 관련하여 2017학년도 2학기에 편성되는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2017학년도 2학기에 새로이 편성되는 교과목으로는 캡스톤 디자인이 있으며, 정보공시 기준으로 교과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과목명에 반드시 “캡스톤 디자인 또는 종합설계”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제품 등을 위한 실습비를 지급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설명함 ○ 김재환 의원이 캡스톤 디자인의 정의를 질의함 ○ 김진경 의원이 캡스톤 디자인이란 1,2학년 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하는 교과목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기획실장이 2017학년도 2학기에 교과목을 새로이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교육의 질 			

을 개선하여 전공 분야별 전공 역량 배양을 하고, 재학생들이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임을 덧붙여 설명함

- 아울러 전공 교과목 구성 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전공학점 대비 전공 필수(기초 포함) 비율을 30%±10%로 조정하고 및 전공 교과목 실험, 실습, 실기 과목 개설 비율을 과목수 기준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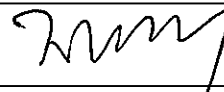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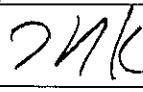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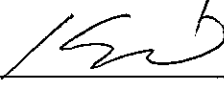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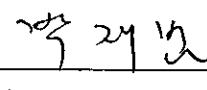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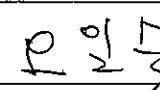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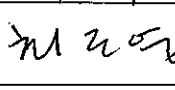

구분(과목성격)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이론	90	60 ~ 70
이론+실험(실습, 실기)	5	15 ~ 20
실험(실습, 실기)	5	15 ~ 20
합계	100	100

이는 평가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함

- 이에 참석한 모든 의원이 본안을 항목별로 논의한 바, “모든 항목이 적정하게 심의 되었다”고 의견을 표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다.
-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

III. 폐회선언

○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확 인	의 원	서 명	의 원	서 명
	정광희		김재환	
	김진경		황태선	
	임지영		박재범	
	오일숙		최근영	
	신의섭		배진건	
	장용석		